

재경부, 농약원제 기본세율로 개편

2007.1.1부터 시행 예정, 8% → 2%로

재정경제부에서는 금년까지 기초원자재의 장기·반복 탄력관세 등이 적용되어 오던 품목을 기본세율화(化) 하고 이후 DDA 및 FTA와 같은 협상과 연계지어 최근 국제무역 환경변화와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관세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개편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 시키며, 기본관세율 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 관세율을 조정하고 현재 할당관세 또는 잠정관세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2006년 현행 적용세율을 기본세율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 개편에서 농약원제도 지난 1988년부터 계속 적용받아 오던 할당관세가 폐지되고 기본

세율이 8%에서 2%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연간 약 240억원 정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경감되어 농약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물론 나아가서는 농약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의 생산비가 낮추어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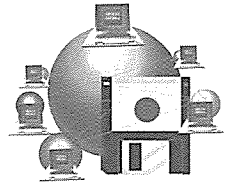
농약업체에서는 농약원제 수입할 때 지금까지는 협회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야만 할당관세 2%를 적용 받았지만, 2007년부터는 협회 추천 없이도 세율 2%를 적용받게 되고 자유롭게 통관할 수 있어 인력, 시간 및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가에서도 업체가 지속적인 관세경감을 받게 되어 저가로 농약을 공급받게 되어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과 함께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물보호협, 「방송작가 초청, 농약안전성 세미나」 실시 10.19 방송작가협회 회원,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 견학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을 초청,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갖고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

지난 10월 19일 대전 (주)동부한농 농업기술연구소 강당에서 개최된 금번 세미나에는 KBS-R '아버지' '부드러운 밤' 과 KBS-TV '이무기 삼촌' 등을 집필한 작가 강우진씨를 비롯, 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충남대 이규승 교수의 강의로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비롯,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개발과정,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세미나 후에는 동 연구소의 선진 연구시설과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대전공장의 최신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 개발 및 제조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날 참석한 SBS-TV '해결! 돈이 보인다' 와 MBC-TV '아주 특별한 아침', KBS-TV '체험! 삶의 현장' 등을 집필한 신지영 작가는 "평소 무심코 지나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의 집필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물보호協, 「소비자단체 종사자 초청, 농약안전성 세미나」 실시

11.9-11.10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임원단,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 견학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도심지 여론 주도층에 대한 농약안전성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지난 10월 19일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20여명을 초청, 행사를 가진데 이어,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속 임원단 40여명을 초청, 농약 개발과정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가졌다.

경주 소재 (주)경농 중앙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첫날 행사에서 대구대 이영득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개발과정,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특히 주부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의 올바른 역할과 이해를 당부했다. 또 세미나 후에는 동 연구소 황인천



소장의 안내로 선진 연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이튿날인 10일에는 경농 대구공장을 방문, 최신 자동화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제조환경 및 생산현장 종사자들의 건강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김옥자 사무국장은 “개발과정에서부터 많은 주부들이 걱정해 온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경감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듣고는 많이 안심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22회 한·일·대 3국 자매회의, 일본 미야자키서

올해로 제22회를 맞는 한·일·대 3국 농약협회 자매회의가 오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미야자키 Sheraton Grand Ocean Resort에서 열린다. 일본농약공업회(JCPA, Japan Crop Protection Association) 주최로 열리는 이번 자매회의에서는 각국에서 5명 내외의 회장단이 참석하여 3국 자매회의의 미래 및 각국의 당면현안 등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엘, 전 직원 연수회 개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07년도 사업을 위한 연수회를 열었다.

동부한농, 창립 53주년 맞아 '경영진과 대화'

동부한농 (대표이사 최성래)이 지난 10월 2일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서울 동부금융센터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최성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경영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원참여를 통한 고효율, 고성능 창출'을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 영광의 주역이 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꿈과 비전의 창조자, 의지와 전략의 실천자'가 되어 앞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 사장은 또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외 환경과 이로 인한 역경 등 어려운 상황으로 요약되는 현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가 안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을 끌어내어 고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할 것인가 하는 확고한 방향 설정의 기회도 얻었다"



고 밝혔다.

이날 동부한농 창립 53주년 기념식 후반에는 '경영진과의 대화'라는 시간이 마련돼 창립기념일의 뜻을 더했다. 직원들은 회사 생활의 애로점을 토로하며 발전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건의사항을 내놓았고, 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은 이를 귀담아 들으며 제안 내용에 따라 즉시 혹은 앞으로 힘을 합쳐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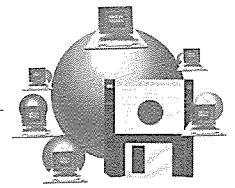
회사와 임직원의 업무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는 '미래를 여는 새 지평(New Horizons)'이라는 슬로건 아래 차분하지만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풍등이 하나 둘 가을 밤하늘로 힘차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내년에는 우리 농촌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기도 했다.

신젠타코리아, 「2007년을 승리로」 새 출발 워크숍

신젠타 코리아(주)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북 경주에서 2007년 승리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 직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2006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07년 한해도 승리로 끌어가기 위한 회사의 전략 실현을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공헌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좋고 빠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



용마초교 학생, 바이엘 평택연구소 방문

용인시 소재 용마초등학교 4학년 학생 40여 명과 학부모들이 현장체험활동 일환으로 바이엘 크롭사이언스 평택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작물보호제란 무엇이며 해충이란? 또는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잔류 및 생물 연구실을 직접 돌며 설명을 들은 방문객들은 특히 현미경도 직접 들여다보고, 곤충 사육실에서 직접 곤충을 만져보는 등 모두들 색다른 경험에 즐거워했다. 또한 연구소 내 과수원에서 작물보호제를 사용한 사과, 배와 사용하지 않은 과일의 차이점을 보고 직접 수확을 해 보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으며



나뭇잎을 이용한 곤충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는 등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연구소 체험은 다양하고 유익했다.

한편 바이엘측은 “향후에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 되었다. 또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으로부터 이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한국삼공, 「2006영업본부 하반기 전략회의」 개최



한국삼공(주)(회장 한광호)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고 글로리아호텔에서 「2006년 영업본부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전략회의는 농업인에게 한층 더 강화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병해

충관련 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또한 2007년 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을 통해서는 대농업인의 서비스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 되었다.

인사

■ (주)경농 <전보> △신규사업팀장 안희성 상무이사 △친환경기획팀장 최용석 상무보 △마케팅기획팀장 이진 수석부장 △홍보·보급팀장 김관수 수석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락 상무이사

■ 한국삼공(주) <승진>△재정관리본부장 함경훈 이사(집행이사) △생산본부 생산팀장 송선섭 이사대우(부공장장) △개발본부 농업연구소장 정창국 이사대우△ " 농업연구소 화학팀장 이석희 부장 △영업본부 충남지점장 정석교 부장 △생산본부 품질관리팀장 신관섭 부장 △재정관리본부 경리팀장 정호익 부장 Y